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태국






### Kingdom of Thailand

2023년 2월 22일 | 책임조사역(G3) 박선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513천 km <sup>2</sup> 	<b>인구</b> 7,007만 명 (2022 <sup>e</sup> ) 	<b>정치체제</b> 내각책임제 (입헌군주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중립 
<b>GDP</b> 5,348억 달러 (2022 <sup>e</sup> ) 	<b>1인당GDP</b> 7,631달러 (2022 <sup>e</sup> ) 	<b>통화단위</b> Baht(Bt) 	<b>환율(U\$기준)</b> 35.06 

-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태국은 한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국토와 7,007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서쪽으로 미얀마, 북동쪽으로 라오스, 동쪽으로 캄보디아, 남쪽으로 말레이시아와 각각 국경을 접하고 있음.
- ASEAN 국가 중 인구 4위, GDP 규모 2위인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경제국으로 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함. 열대성 기후의 연중 휴양지로 청정해안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여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음. 2022년 워드 코로나 시대 도래로 관광업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23년 5월 총선을 앞두고 빠랏웃 째오차(Prayuth Chanocha) 총리가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소속당인 팔랑쁘라차랏당에서 총리 후보로 선출될 확률이 낮자 탈당 후 신규 출범한 루엠타이쌍창당에 입당하는 등 정당 간 긴장감 및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ASEAN 및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중심 국가이며, 양자 및 다자간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58. 10. 1 수교 (북한과는 1975. 5. 8)

**주요협정** 무역협정('61), 항공협정('68), 이중과세방지협정('77), 과학기술협력협정('85), 투자보장협정('89), 범죄인인도조약('01), 해상운송협정('02), 문화교육협정('04), 수형자이송조약('12), 사법공조조약('15)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6,852,684	8,524,224	8,584,191	전자·전기 제품, 철강, 석유화학제품
수입	5,196,533	7,014,746	7,881,424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12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1,280건, 3,185백만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4.2	2.2	-6.2	1.5	2.8
소비자물가상승률	1.1	0.7	-0.8	1.2	6.3
재정수지/GDP	0.1	-0.8	-4.7	-7.0	-5.6

자료: IMF,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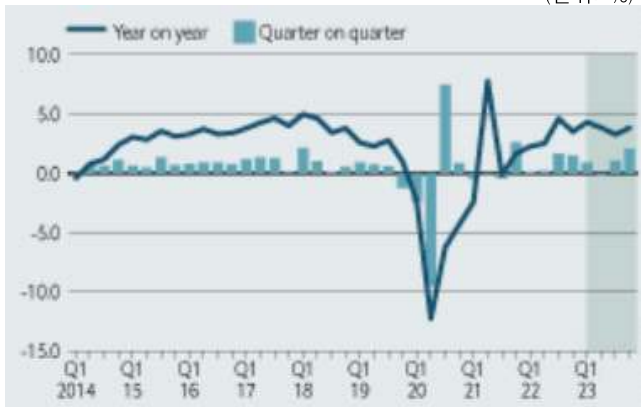
### 2022년 관광 부문 회복 등으로 2.8% 경제성장 추정, 2023년에도 회복세 지속 전망

- 태국 경제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사업, 대외거래 호조 등으로 2017~18년 4%대의 양호한 성장을 기록 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6.2%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음. 2022년 하반기부터 관광 부문 회복, 민간소비 증가, 공공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2022년 경제성장률은 2.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로 인한 태국 내 중국 관광객 입국 증가 예상 및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신규투자 촉진전략으로 전기차, 전기차 부품 등 핵심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국 경제는 2023년 3% 후반의 성장을 기록하며 점차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태국 관광협회에 따르면 2022년 태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은 1,180만 명이며, 2023년에는 2,500만 명의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한편, 태국 정부는 관광산업 개발 5개년 계획안 통과('23.1.4), 관광 보조금 지급 검토 등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음.
- 한편, 태국 정부의 2023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3.7%이며 IMF, ADB, 세계은행 등도 3.6~4%대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바트화 가치 하락 등 경제 하방요인도 상존함.

\* 태국 경제성장률 전망: IMF 3.7%, ADB 4.0%, 세계은행 3.6%, EIU 3.8%, Fitch 3.9%

[그림 1] 태국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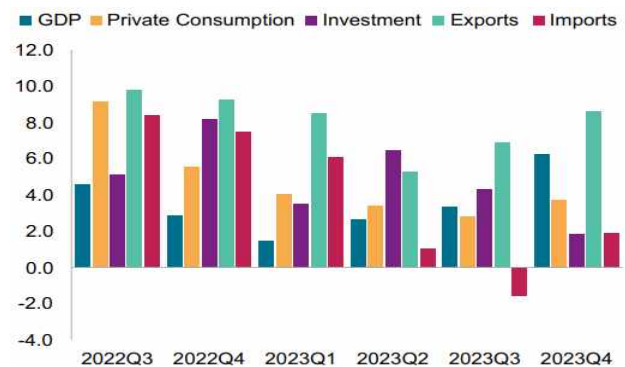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EIU

[그림 2] 태국 GDP의 항목별 증감률

(단위: %, 전분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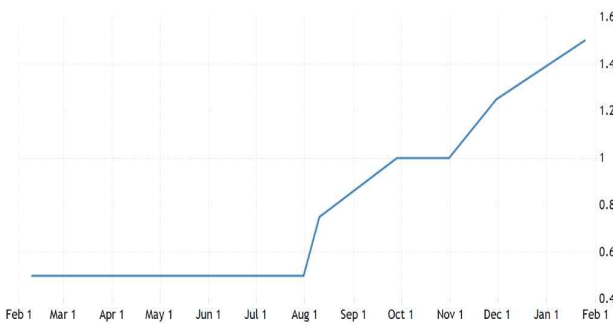
자료: IHS Markit

## 국내경제

###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4년 만에 최고치 기록,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네 차례 연속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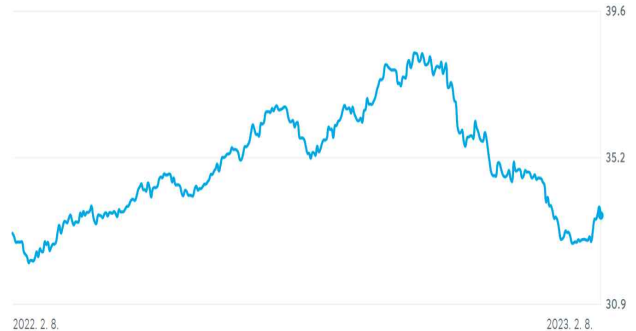
- 태국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8~2021년 중 1.5% 미만으로 억제되어 왔으나,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국제유가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해 14년 만에 최고치인 6.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특히, 2022년 12월 기준 육류 가격상승률이 19.95%로 가장 높았으며, 에너지 14.62%, 전기, 연료 및 상수도 13.03%로 대부분 부문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
- 한편, 태국 정부는 2022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며, 2023년에는 통화 정책 등을 통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3% 범위 내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태국 중앙은행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로 유지해왔으나, 2022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바트화 평가 절하 및 물가 상승이 심화되자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기준금리(key policy rate)를 2022년 8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00bp 인상하여 1.5%를 유지 중임.
- \* 2022.8월 0.75%(▲25bp) → 2022.9월 1.0%(▲25bp) → 2022.12월 1.25%(▲25bp) → 2023.1월 1.5%(▲25bp)
- 2022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바트화의 평가절하가 지속되었으며, 2022년 10월에는 16년 만에 최저치인 38.32를 기록함. 한편, 2022년 7월 관광 개방, 10월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 등으로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면서 태국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며, 태국 내 외국인들의 투자활동도 회복되어 최근에는 바트화의 달러 대비 가치가 상승함.
- \* 달러화 대비 바트화 가치 : 33.22('22.2.20) → 38.32('22.10.16) → 33.76('23.2.8)

[그림3] 태국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태국 중앙은행/Trading Economics

[그림4] 태국 바트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 변동 추이



자료: 태국 중앙은행/WISE

## 국내경제

### 경제활동 회복에 따른 세입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점진적 개선 전망

- 재정수지는 2010년 이후 매년 GDP의 -1~1%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수 감소에 더해 원천징수 감면, 부가가치세 환급,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기 등의 감세 정책을 펼치는 한편 경기 부양 및 방역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결과 2020년 GDP 대비 -4.7%, 2021년에는 GDP 대비 -7.0%의 적자를 기록함.
-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지출 감소로 재정적자 규모 축소, 관광 부문 회복 등에 따른 세입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5.6%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IMF에 따르면 민간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 시행 및 공공 프로젝트 추진으로 재정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겠으나, 태국 정부의 위드코로나 선언으로 2023년에는 코로나 19 대응 지출 감소 및 관광 부문 회복 등에 따른 세입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GDP(%) : -5.6(2022년) → -3.2(2023<sup>f</sup>년) → -3.2(2024<sup>f</sup>년)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 상 수 지	28,479	38,256	20,933	-10,646	-16,705
경상수지/GDP	5.6	7.0	4.2	-2.1	-3.1
상 품 수 지	22,388	26,725	40,402	32,354	10,800
상 품 수 출	251,108	242,701	226,984	270,564	285,400
상 품 수 입	228,720	215,976	186,582	238,210	274,600
외 환 보 유 액	197,031	214,573	246,034	224,804	195,582
총 외 채	172,498	179,773	204,147	210,562	223,263
총외채잔액/GDP	34.1	33.1	40.8	41.6	41.8
D.S.R.	6.1	6.7	8.5	6.7	7.2

자료: IMF, EIU, OECD

### 관광업의 경기 회복 등으로 2023년 경상수지 흑자 전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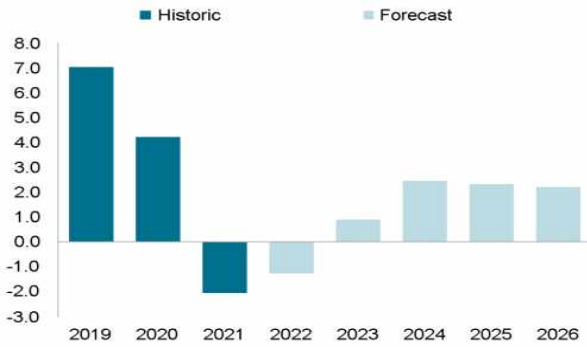
- 태국 총수출의 약 19%(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관광업은 2014~20년 태국의 서비스수지 흑자와 그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유지\*에 일조해 왔으나, 2020년 초 시작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관광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서비스수지가 2020~22년의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도 2021년 GDP 대비 -2.1%, 2022년 GDP 대비 -3.1%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4~19년 경상수지 흑자 내 서비스수지 흑자 비중(%) : 57.5('14) → 56.1('15) → 46.7('16) → 55.3('17) → 79.1('18) → 63.6('19)

- 2022년 하반기부터 관광 개방,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 등으로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에는 서비스수지와 경상수지의 흑자 전환이 예상됨.
- 태국의 상품수출은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의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조립생산하는 가공무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최근 전기차 산업 투자 유치 대책 수립, 보조금 지급 등 동남아시아의 전기차 생산 허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태국의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고 동남아 국가 내 전기차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함.
- 태국 쌀 수출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태국 쌀 수출량은 2021년 대비 약 26% 늘어난 769만 톤을 기록하여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으로 도약함.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전 세계적 식량안보 우려 속에서 태국의 쌀 수출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태국 투자청에 따르면 태국의 전기차 산업 투자 유치 대책 발표 후 중국, 일본, 유럽 등 자동차 제조사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태국 시장 진출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까지 태국 내 슈퍼차저(Supercharger), 서비스센터 등 총 10곳을 오픈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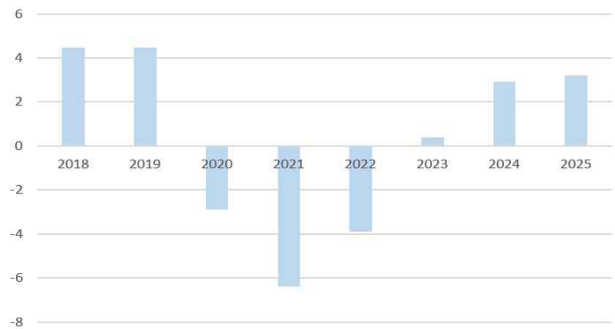
## 대외거래

[그림 5] 연도별 GDP 대비 경상수지 추이 및 전망 (단위: %)



자료: IHS Market

[그림 6] 연도별 GDP 대비 서비스수지 추이 및 전망 (단위: %)



자료: EIU

##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은 비교적 양호하나, 증가하는 외채 모니터링 필요

- 태국의 외환보유액은 2021년 말 기준 2,248억 달러였으나, 바트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말 기준 약 1,956억 달러로 감소함. 다만, 2022년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6.3개월분에 해당되어 상대적 기준으로도 양호한 편이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7.2%로 추정되어 외채상환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총외채잔액/GDP,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함

※ 총외채잔액/GDP(%) : 34.1('18) → 33.0('19) → 40.8('20) → 41.9('21) → 4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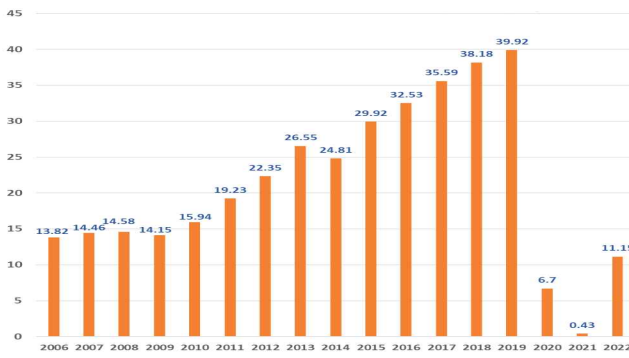
※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추이(%) : 32.2('18) → 27.9('19) → 30.4('20) → 33.7('21) → 38.8('22)

## 구조적취약성

### 관광업은 외부환경에 취약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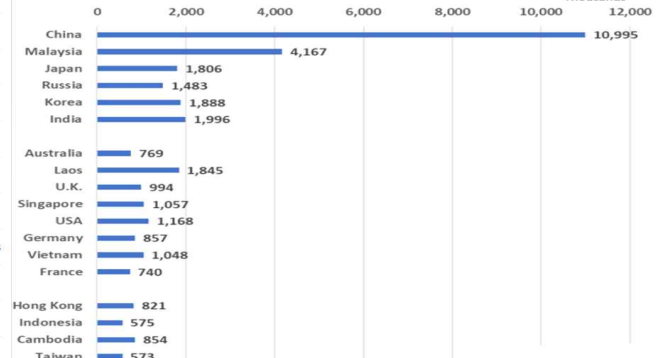
- 관광업은 2019년 기준 태국 총수출의 약 19% 및 GDP의 약 11%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외화 획득과 고용 창출에 기여해 왔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관광객들의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관광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음.
- 2019년 약 3,992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에서 약 811.7억 달러 규모를 지출한 데 반해 2020~21년에는 총 713만 명('20년 670만 명, '21년 43만 명) 외국인 관광객이 연평균 약 320억 달러를 지출하는 데 그쳤으며, 그 차이는 2021년 GDP의 약 9%에 달함.
- 2022년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드코로나'를 선언하며 국가 간 이동이 회복됐으나, 태국 관광객의 27%를 차지(2019년 기준)하는 중국의 강력한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중국인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태국 관광업의 타격은 계속되었음.

[그림 7] 태국 입국자 수 추이(백만 명)



자료: 태국 관광스포츠투부(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

[그림 8] 2019년 태국 관광객 수



자료: 태국 관광스포츠투부(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

###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적

-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7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임. 태국의 가계부채는 말레이시아(77.2%), 중국(59.8%), 인도네시아(17.2%) 등 아시아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 가계부채(억 달러) : 3,794('18) → 3,989('19) → 4,147('20) → 4,309('21) → 4,365('22)

※ 가계부채/GDP(%) : 78.1('17) → 78.4('18) → 79.8('19) → 89.7('20) → 90.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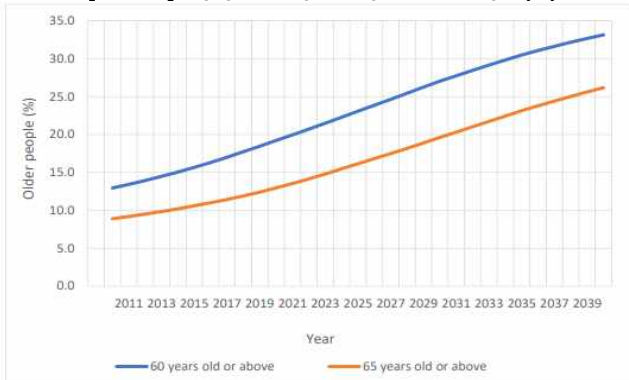


## 구조적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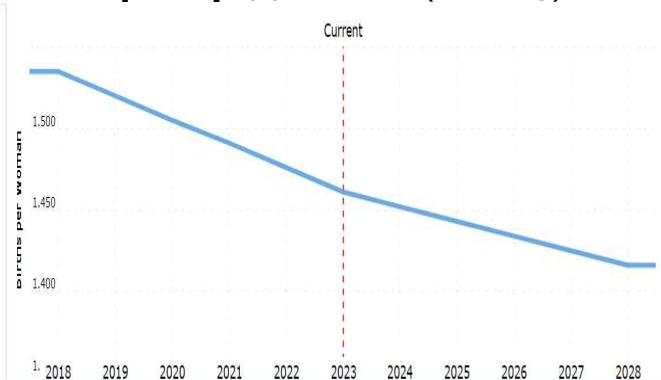
### 인구 고령화, 저출산, 주변국 대비 높은 임금수준으로 제조기지로서의 경쟁력 약화

- 태국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가능)인구 부족이 경제성장의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3,878만 명이었던 태국의 노동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40년 약 3,650만 명을 기록할 것이며, 태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1년 20%에서 2040년에는 32%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태국 정부가 2022년 5월 17일에 발표한 2022~37년 인구개발계획안에 따르면 2037년 태국 노동력 수요는 2017년 3,755만 명보다 19.1% 증가한 4,471만 명이나, 노동인구는 10년마다 300만 명 이상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봄. 태국은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며, 각 지역마다 고령자 비율, 교육 수준 등이 다르므로 지역에 맞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언급함.
- 2021년 기준 태국의 출산율은 1.51명으로 베트남(2.53명), 캄보디아(2.5명) 등 주변국들 보다 낮은 편임. 또한 태국의 중위연령은 40.1세로 베트남 32.5세, 라오스 20.8세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며,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됨.

[그림 9] 태국 총인구 대비 노년층 비중(%)



[그림 10] 태국 출산율 추이(여성 1인당)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2019) 자료: 태국 통계청/ macrotrends

- 2023년 2월 현재 태국의 일일 최저임금은 354바트(약 10달러)이고, 월 최저임금은 약 200달러로 미얀마(67달러), 라오스(110달러), 캄보디아(128달러), 베트남(96달러) 등 주변국 대비 높은 편임.
- 노동력 부족 및 지속적인 임금 상승은 민간투자 위축과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져 노동집약적 산업이 인근 동남아 국가로 이전하는 요인이 됨.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면서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기지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태국은 상대적인 고임금으로 베트남 등 주변국에 비해 불리한 입장임.

## 성장잠재력

### BCG(Bio-Circular-Green) :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경제발전 모델 도입

- 태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해 왔으며, 2022년 11월에는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경제 발전을 위해 BCG(Bio-Circular-Green)도입을 발표함. 기업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군부의 집권이 계속되면서 비교적 효율적인 사법제도와 조세 시스템 등 주변국 대비 우호적인 외국인투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2026년까지 2021년 GDP의 24% 수준인 4.4조 바트(약 166조 원)을 4대 핵심산업\*에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힘
- \* 식품 및 농업, 의료 및 웰니스, 신재생 에너지(에너지·소재·바이오화학), 관광 및 창조경제
- 또한, 태국은 지속가능한 관광 상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관광업에 접목시키고 있음. 트랏(Trat) 주의 꼬막(Koh Mak) 섬을 태국 최초의 저탄소 관광지로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줄이거나 친환경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앞 세제 혜택 및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 부여도 고려 중임.

[표 1] 태국 BCG 경제 발전 모델 핵심사업별 추진 과제

핵심산업	세부 추진 과제
식품 및 농업	스마트 팜, 신식품종 작물 경작 및 축산 (목표) 제품 차별화 및 프리미엄 농산물 개발을 통한 프리미엄화
의료 및 웰니스	유전자 치료, 백신, 원격의료, 임상실험 (목표) 태국의 아세안 의료 허브화, 유전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밀의학 발전
신재생 에너지	(목표) 2037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30%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 목표
관광 및 창조경제	신규 관광도시 개발 (목표) 지속가능한 관광 표준 시스템 확립

###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

- 2021년 기준 태국의 인터넷 사용률은 총인구의 69.5%로 세계 평균인 59.5%보다 높으며, 스마트폰 보급률은 98.8%로 온라인 친화적인 시장환경을 가짐. 최근 태국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정책 및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 정책 추진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내 온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해외 온라인 결제도 증가하는 추세임.
- 2022년 태국 전자상거래 시장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23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달 속도의 가속화가 전망됨.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바트화 결제 가능 국가 확대 노력

- 태국 정부는 2022년 6월 인프라 및 공공사업에 관한 행동계획을 승인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세금 감면, 기계 및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함.
-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태국과 무역 거래 시 바트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승인하였으며, 최근 베트남도 바트화 결제를 승인하였으나 사용 빈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정책성과

###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동부경제회랑 개발 순항 중

- 태국 정부는 2017년 동부경제회랑(East Economic Corridor: EEC)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 5월 정식 발족하였음. 동 계획은 태국 정부가 중장기 국가개발 의제인 '태국 4.0(Thailand 4.0)'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13,285km<sup>2</sup>의 동부 해안 지역(차츄사오 주, 촌부리 주, 라용 주)을 태국 무역과 물류의 핵심이 되는 최첨단 산업 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동 지역이 동아시아, ASEAN, 인도 등 아시아 각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기존에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산업단지 등을 이미 갖추고 있어 차세대 아시아 관문이 될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데 적합하다고 발표하였음.
- EEC 개발 계획은 단계별로 추진 중이며, 태국 정부는 1차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5조 바트(약 430억 달러), 2차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2조 바트(약 66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2022년 10월 태국 정부는 EEC 내 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등 투자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차·스마트시티 등 신성장 동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표 2] 동부경제회랑(EEC) 개발 계획 개요

구 분	내 용
기 간	1차 : 2017~21년, 2차 : 2022~26년
총 예산규모	1차 : 1.5조 바트(약 430억 달러), 2차 : 2.2조 바트(약 667억 달러)
목 적	태국 동부 해안 지역을 최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주요 내용	차츄사오 주, 촌부리 주, 라용 주 3개 지역에 최신 인프라를 정비하고, 여기에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관광, 바이오테크, 음식, 로봇, 항공, 바이오연료, 디지털, 의료 등 10대 첨단산업을 육성
승인 프로젝트	우타파오 국제공항 리모델링, 국제공항철도 개발, 램차방 항구 정비 등
규제 완화	- PPP(민관 합작 투자사업) 인·허가 절차 기간: 8~10개월로 단축(기존 24개월) - 법인세 면제 기간: 15년으로 연장(통상 8년) - 토지 임대 기간: 최장 99년까지 인정 - 원자재와 기계 등 수입품에 무관세 - 국가경쟁력기금을 설치하여 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 타	동 개발계획을 헌법이 규정한 '20년 국가전략'에 포함시키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EC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총리가 직접 맡음

###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 시도

- 2022년 10월 태국 정부는 '위드 코로나' 선언 후 관광산업 및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함. 또한, 향후 5년 간 태국 13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의 초점을 '산업혁신, 인적자원 개발, 균형 발전(사회적 불평등 해소), 환경보존, 위기 및 변화 대응' 5대 이슈에 맞추어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2022년 9월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기술전문인력, 100만 달러 이상 자산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10년 장기거주비자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태국 남부에 약 2,500억 원 규모의 대교를 건설할 예정임.

## 정치안정

### 2023년 5월 총선을 앞두고 긴장감 및 불확실성 고조

- 2014년 5월 22일 태국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경찰과 군부로 구성된 국가평화질서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Peace and Order: NCPO)를 발족한 뒤 국왕의 승인을 받아 2014년 9월 프라윗 찬오차(Prayuth Chanocha) 총리가 이끄는 과도정부를 출범시키고,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도 통제하고 있음.
- 태국 헌법에 의하면 의회는 상원 250명, 하원 500명으로 구성되며, 하원의원은 유권자가 선출하되 상원의원은 전원 NCPO가 임명하며 선거제도를 통한 군부의 합법적 집권이 가능함. 태국 총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상·하 양원의 과반수(250명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126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될 수 있음.
- 군부는 헌법에 의해 상원 250석(상·하원 총 의석의 33.3%에 해당)을 보장받음에 따라 정권 교체 및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 제도하에서는 선거를 통한 군부의 지속적인 재집권 가능성이 높음.
- 2023년 5월로 예정된 총선에 프라윗 찬오차 태국 총리가 출마 의지를 밝혔으나, 소속당인 팔랑쁘라차랏당에서 총리 후보로 선출될 확률이 낮자 탈당 후 신규 출범한 루엠타이쌍차당에 입당함.
- 2021년 3월 창당한 루엠타이쌍차당은 프라윗 총리 측근들이 포진해있으며, 프라윗 총리를 신당 후보로 선출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다만, 태국 헌법상 총리 임기는 5년이고 최장 8년까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프라윗 총리가 연임하더라도 2025년까지만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음.
- 태국 상원은 총리 최장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음. 2023년 1월 15일 태국 상원 정치발전·대중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 개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용역 발주를 승인하였으며, 프라윗 총리를 지지하는 상원의원들도 개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힘. 다만, 상원 내 의견 분열, 부정적인 여론 등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사회안정

### 마약과의 전쟁 선포

- 2022년 6월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최초로 의료용 및 요리 용도의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였으나, 이후 10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 내·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대마초 사용이 늘었고, 이에 따른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됨. 2022년 10월 마약 복용 혐의로 면직된 경찰관이 어린이집에서 총기를 난사해 30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마약 재범죄화 요구가 거세짐.
- 이에 2023년 초 태국 정부는 증가하는 범죄와 언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함. 태국 정부는 필로폰 정제 한 알이라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면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해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섬.
- 한편, 대마초 재범죄화 추진에 대마초 사용 지지자들과 농가들은 크게 반발하며 수도 방콕에서의 시위를 주도하고 있음.

### 2022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한 101위 기록

- 2022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서 태국은 36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01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년 전 110위보다 9단계 상승한 결과로, 베트남보다 낮고 필리핀보다는 높은 순위임.

※ ASEAN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 말레이시아(47점, 61위), 베트남(42점, 77위), 인도네시아(34점, 110위), 필리핀(33점, 116위), 캄보디아(24점, 150위) 등

## 국제관계

### 인접국과의 관계 강화

-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평화,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ASEAN 및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 창설에 참여하며 역내 인접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적극 도모함.
- 또한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를 출범시켰으며,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 철폐, 투자 규제 철폐,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회원국 간 경제정책 조정을 통한 지역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1월 28일 태국은 중국·태국·라오스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시작함. 해당 철도는 기존 교통 인프라와 연계해 구축하고, 태국과 라오스를 잇는 철도 노선은 하루에 14회 운행할 예정임. 한편, 중국과는 과거 철도 건설 관련 설계와 용자 상의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 세계에서 수교국이 가장 많은 국가,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무역 확대 추진

- 태국은 2023년 1월 기준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198개국과 외교관계를 맺어 세계에서 수교국이 가장 많은 국가로 꼽히고 있음. 또한, 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 확대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인도, 호주, 뉴질랜드, 페루, 일본, 칠레와 양자간 FTA를 기 체결했으며, 태국이 속한 ASEAN은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등과 다자간 FTA를 기 체결하였음. 2020년 11월에는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타결되었음.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2023년 1월 태국 정부는 지난 2014년 이후 중단됐던 EU와의 양자 간 FTA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함. EU는 2020년 기준 태국의 무역액에서 5위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파트너로, 태국은 EU에 자동차, 오토바이, 컴퓨터, 에어컨, 고무 등을 주로 수출하고 EU로부터 자동차 부품, 전기설비, 농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FTA가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EU뿐만 아니라 ASEAN-캐나다 FTA의 추진도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 유지

- 2022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들의 태국에 대한 금융지원액은 79억 달러(단기 55.4억 달러, 중장기 23.4억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76.8백만 달러(연체율 0.01%)로 채무상환태도가 양호함.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2022.06)	3등급(2021.06)
Moody's	Baa1(2022.04)	Baa1(2021.08)
Fitch	BBB+(2022.11)	BBB+(2022.06)

### OECD, 국제신용평가 모두 양호한 기존 신용등급 유지

- 태국은 군부 통치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대외신인도 및 외채상환능력 등 경제적 강점에 힘입어 주요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양호한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수년째 계속 유지하고 있음.

-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경제국이자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연간 4천만 명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외거래, 소비심리, 관광객 방문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6.2%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2022년 하반기부터 관광 부문 회복, 민간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2022년에는 2.8%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3년 5월 총선을 앞두고 뿌라웃 째오차 총리가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소속당인 팔랑쁘라차랏당에서 총리 후보로 선출될 확률이 낮자 탈당 후 신규 출범한 루엠타이쌍차당에 입당하는 등 정당 간 긴장감 및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음. 총선 후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이 시위로 표출될 시 사회, 경제 불안이 높아질 수 있음.
- ASEAN 및 아세안자유무역협정의 중심 국가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에 힘쓰고 있어 주변국 대비 관련 제도와 인프라 등 투자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 양자 및 다자 간 FTA를 다수 체결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대외거래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외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외환보유액 및 외채 관련 지표가 대체로 양호하여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보임.